

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 불교본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5. 5. 20.(화) 18:00	배포일시	2025. 5. 20.(화) 18:00 배포 즉시
종교본부 불교본부장	김병주 본부장 김영배 본부장 김준혁 본부장	담당자	

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 불교본부, 대한불교조계종과 정책제안서 전달식 개최

- 불교계와의 연대 강화... 대한불교조계종 정책제안서 전달받고 불교 정책 강화 의지 표명
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 불교본부(본부장 김병주, 김영배, 김준혁)는 2025년 5월 19일(화) 오후 3시,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했다.
- 이번 전달식은 불교문화의 계승과 발전, 전통문화유산 보존, 국민 마음건강 증진,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.
- 대한불교조계종이 제안한 정책들은 △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, △전통문화유산의 면단위 보존관리, △불교문화유산의 형평 있는 예산 반영, △연등회 전승관 건립, △명상 대중화와 정신건강 교육 도입, △불교문화교류 확대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적 안정을 뒷받침할 실질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.
-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「불교문화 공약」에서 “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

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”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, 다음과 같은 불교문화 공약을 수립하였다.

-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
-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 개선과 복합유산에 맞는 관리체계 수립
-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
- 템플스테이 및 명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

□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제안과 더불어민주당의 「불교문화 공약」의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, 조계종의 정책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공약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.

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김병주 의원은(불교본부장)은 “더불어민주당은 조계종과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불교문화 정책을 실현하고,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”는 비전을 제시했다.

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김영배 의원은(불교본부장)은 “지난 1700 여년간 우리 민족의 DNA에 자리 한 불교 문화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의 집중 할 것이며, 부처님의 화쟁의 가르침이 국민 통합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다짐을 전했다.

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김준혁 의원은(불교본부장)은 “우리 사회에는 타인과 생각이 다르고, 지역이 다르고, 종교가 다르고, 인종이 다름을 조

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, 불교의 가르침인 원융(圓融)과 화쟁(和諍)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 정신으로 나아가겠다“는 포부를 밝혔다.
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이수진의 원은(불교본부 상임부분부장)은 “대한불교조계종의 소중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, 전통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교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·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“고 당부했다.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민병덕의 원은(불교본부 부분부장)은 “전국민의 치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조계종에서 민주당에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” 며, “앞으로도 민주당이 불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 임오경의 원은(불교본부 부분부장)은 “오늘 조계종에서 제안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제도 개선, 불교문화유산의 형평있는 예산반영 등의 내용은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계승, 발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” 이라며, “문체위 간사로서 관련 입법, 예산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“ 고 밝혔다.

[첨부]

1.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-대한불교조계종 정책제안서 전달식 사진



